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도입의 과제 및 추진방향

남 보 우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학입학사정관제란 대입관련 자료를 조사 및 심사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환경, 잠재력 소질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서 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대학에서의 우수인재 선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제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I. 추진배경 및 경과

중등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필연성과 우수학생을 선발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대학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이다.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에 대하여 포괄적 심사를 하고 합격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학생 선발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성적을 기록하는 교과학습발달상황 이외에도 11가지의 영역이 있다. 즉,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체험활동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수상경력,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이 추구하는 다양한 영역이 기록된다. 그러나 대학입학에서는 점수를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일부 고등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점수 올리기 위해 치중하고, 많은 학생들이 점수를 올리기 위하여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점수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다양한 영역의 고등학교 생활기록과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잠재력이 있는 학생,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면 고등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방향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이 우수학생의 개념을 점수만 높은 학생이 아니라 창의력과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으로 정의한다면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기준은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면 입학사정관이 학업계획서와 고등학교 생활기록 등 지원자에 관한 주요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창의력과 발전가능성을 심사하고 합격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입학사정관제는 이러한 포괄적 심사에 대하여 대학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의 입학사정관제는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주요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입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대학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아 대학입학전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을 견지하여 왔다. 따라서 대학은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수능성적이거나 학생부 교과성적을 주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대학은 다양한 재능과 적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성을 키워 주고,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생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더 이상 객관성만을 강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중등교육 정상화와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선진화된 대학입학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에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계획하였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전형의 전문화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적·행정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7 주요 업무계획에 '입학사정관제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의 건학이념 및 발전전략, 모집단위별 특성 등에 적합한 전형방법을 연구·개발하도록 하여 대입전형의 특성화·다양화를 도모할 예정'으로 명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6월에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7월에 선정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통하여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II.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개념

대학입학사정관(査定官, Admission Readers, Admission Officer)은 대입관련 자료를 조사 및 심사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예(정영수, 해외 대학입학제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7)를 검토하면 입학사정관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버클리대학의 입학사정관은 60여 명의 입학처 직원과 30여 명의 임시 입학사정관이 5~6주의 교육을 받은 후 신입생 선발을 맡게 된다고 한다. 임시 입학사정관은 주로 수년 간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선발되며 전직 입학처 직원, 전·현직 고등학교 대입상담 전문가, 사설 대입상담 전문가, 정년퇴임한 교장이나 교사, 교육학 전공의 대학원생 등의 경력을 지니고 있다. 모든 사정관들은 매년 60시간의 입학사정관 연수를 받게 되는데 입학사정 매뉴얼을 숙지하고, 12시간의 훈련과정을 통해 입학사정 매뉴얼의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 자료 표본을 골라 약 80개의 입학지원자 자료를 모든 입학사정관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자료들은 이미 전문가에 의하여 평점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입학사정관이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전문가가 판단한 평가와 자신이 내린 평가를 검토하는 3시간의 자유토론 형식의 훈련과정을 8회 이수해야 한다. 실제로 입학사정을 하게 되는 두 달 동안에도 모든 입학사정관들은 매주 훈련기간에 사용한 평가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하기 힘든 사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면서 조정한다고 한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각 고등학교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고려하며, 종합점수에는 학생 개개인이 처한 역경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학업성취를 이루었는가를 확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몇몇 대학이 입학전문위원을 임용하여 입학전형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입학전문위원은 입학관련 자료 및 정보를 조사·분석하고, 전형요소, 전형유형 및 전형방법을 연구하고 제안함으로써 대학이 입학전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입학전문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전문위원은 지원자의 입학 자료를 평가하고 입학을 결정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교수들이 기술면접 시험관으로 참여하여 평가함으로써 입학사정관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사회는 교수의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입학사정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7년에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대부분의 대학은 주로 입학관련 자료의 조사 및 분석과 입학전형을 연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몇몇 대학은 입학지원자의 자료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일부 수행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초기부터 입학사정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의 시비에 얽히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기본역할이고, 입학관련 조사 및 연구기획 업무는 입학사정의 수행 또는 대학의 입학정책 수립을 위한 보조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입학사정을 담당하는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도록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켜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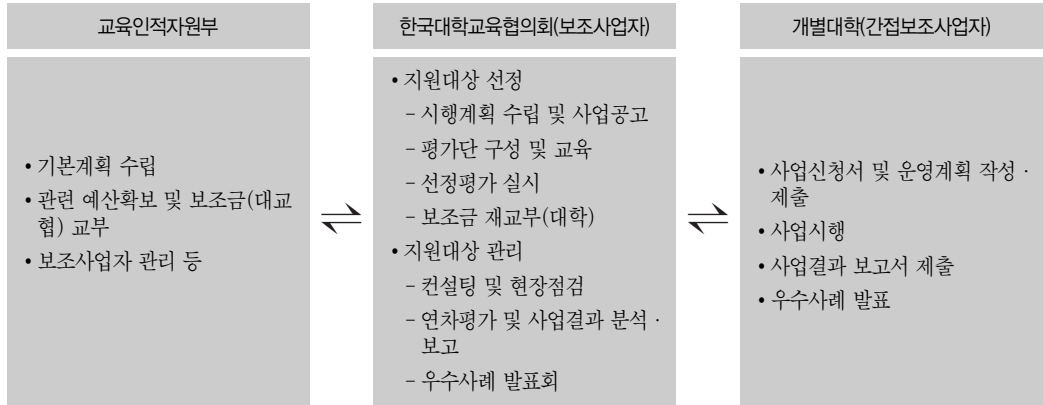
Ⅲ. 2007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교육인적자원부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통하여 대학이 당장의 1~2점 점수 차보다는 대학입학 후 발휘될 잠재능력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07년 6월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대입전형 전문가가 학생선발에 관여 시·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시하면서 학생부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입학사정관은 연중 입학업무를 전담하게 되므로 대학입학업무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도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약 6~9개 대학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신청대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중 입학업무 관리를 위한 처·본부 이상의 전담조직이 설치되어야 하고, 전임교원 확보율이 57.5% 이상이며, 신입생 충원율이 90% 이상인 대학이다. 대학입학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대학의 제출 자료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인터뷰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은 현장점검 및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며, 최대 3년 간 매년 2~3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추진방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사업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보조사업자를 관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보조사업자로 지원대상을 선정·관리하며, 개별 대

〈표 1〉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추진방식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 2007.6.

학이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신청 및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V.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의 과제 및 추진방향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대학입학전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포괄적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입학전형에서는 엄격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점수 등 정량적 자료를 반영하고, 정성적 자료를 반영하더라도 정량화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점수 반영의 세부 기준이 제시되면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사설교육기관은 기준만을 맞추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게 되므로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출결사항 평가기준, 수상실적의 평가기준, 봉사활동 평가기준, 특별활동 평가기준, 학업계획서 평가기준 등 세부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

학사정관이 참고기준으로만 활용하여 전문적·주관적·포괄적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자의 자료를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결과로 평가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전문적·포괄적 관점에서 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이었다고 대응할 수 있어 세부 기준별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보다 유리하다고 본다. 현행 구술면접시험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논리이다.

둘째,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하되, 학교생활기록부를 포함한 입학관련 자료는 입학사정관이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적·주관적 평가방식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교수들이 평가에 주로 참여하고 점진적으로 상임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담당한다면 전문적·주관적 평가에 대하여 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및 발전 여부는 개

별대학의 노력으로만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며, 대학들이 공동으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연수를 통한 입학사정관자격 인증시스템 도입, 포괄적 평가 및 반영에 대한 공동의 법률적 과제 대비, 국제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사정관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 공동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대학과 고등학교가 공정해야 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는 인정을 중시하므로 업무에 있어서 다소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있어 왔다고 본다. 대학입학전형은 학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안이고 입학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부적격자를 입학시킨다는 것은 다른 입학할 사람을 불합격시키는 결과이므로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사회는 대학을 불신하게 되고 입학사정관제는 정착하기 어렵다.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며, 견제장치 등을 마련하여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및 대학이 법적 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 입학사정관제도가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범법자가 있다고 해서 제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추천서 등이 공정하고 충실하게 기록되어 대학이 우수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고등학교의 기록을 믿어야 하고 고등학교는 공정하고 충실하게 기록해야 할 것이다.

V. 향후 계획 및 맺음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

고, 40~50개의 대학을 지원할 전망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총리는 담화문(2007. 7. 6)에서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기록을 통하여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활동을 평가해 준다면 학생들은 단순한 점수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하여 개별대학들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발생하게 될 불공정행위, 평가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입학준비를 할 수 없다는 비난, 또 하나의 입학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비난 등 몇몇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을 선진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남보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8년부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렌셀러대학교 객원교수로 연구하였으며, 입학관리처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산업정보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년 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장으로 대학입학관리 지원사업을 주관하였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21세기 경영학원론』, 『CES합수 확장선을 제약으로 하는 최적화 모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집단간의 실력차이 보정방법 연구』 등 다수가 있다.